



스포츠 포커스

광주 육상의 대부 심재용 광주시청 감독



'1등 광주육상' 향해 오늘도 뚝다



심재용 광주시청 육상감독이 지난 22일 광주시청 육상 대표 선수들과 함께 스타트 자세 교정 훈련(위)과 복근 강화 운동을 지도하고 있다.

“지도자의 가장 큰 덕목은 선수에게 신뢰를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지도자와 선수간의 신뢰만 형성되면 기록 향상은 자연스럽게 이뤄집니다.”

광주 육상의 대부로 불리는 심재용(48) 광주시청 육상감독이 밝히는 지도자 덕목이다.

젊은 눈썹과 호안, 약간 찡그린 듯한 인상의 감독이 밝힌 지도자의 덕목은 약간의 의외였다. 강한 인상대로 선수들을 스프라타 식으로 다그칠 것 같지만 알고보면 그는 ‘용장’이 아닌 ‘덕장’이었다.

‘육상에 미친 사나이’ ‘스카우트의 귀재’로 불리는 감독을 지난 22일 제88회 광주전국체전 메달확보를 위해 훈련이 한창인 광주 무등경기장에서 만났다.

“은사인 최병량 선생님과 김응식 교수님도 계신데...”라며 한사코 인터뷰를 거부했던 감독의 트레이드 마크가 된 ‘육상에 미친 사나이’라는 호칭은 선수들에 대한 남다른 사랑과 욕심 때문.

감독은 여전 삼일중 1학년때 배구선수로 활동하다 2학년때 학교 체육대회에서 발탁돼 육상에 입문했다. 그후 1978년 광주체고 3년때 100m에서 10초 8의 기록으로 전남신기록을 작성했고, 전남체육회 소속이었던 83년부터 86년까지 전국체육대회 400m계주 4연패를 달성하며 최고스프린터로 명성을 날렸다. 하지만 장래가 촉망되던 감독은 유도, 레슬링 부와의 잦은 시비로 파출소를 들락거렸고, 월 5만원 실업선수, 월봉 35만원의 코치까지 가난의 질곡에서 벗어나지 못해 20대에 서울에서 조폭생활을 하기도 했다.

희생·봉사로 제자 사랑...전국체전 메달석권 도전

세단뛰기 ‘김덕현’ 세계적 선수로 키우는데 꿈

이형근을 키우면서 ‘선수없는 감독은 무용지물’ ‘성적을 위해서는 모든것을 희생하겠다’는 진리를 터득한 감독은 이후 서민석, 김재다, 김혁, 한국 육상의 희망으로 성장한 박태경 등을 스카우트 하면서 ‘스카우트 귀재’로 이름을 떨치게 됐다.

그러면서 36살의 늦깎이로 결혼, 96년에 구입한 32평 아파트를 부인과 상의해 처분해 선수스카우트 비로 쓰면서 임대아파트로 옮긴 제자사랑 일화는 ‘육상에 미친 사나이’로 통하게 했다.

감독의 선수사랑과 욕심은 선수들과 ‘신뢰’로 통하게 했고, 선수들은 스스로 운동을 하면서 기록향상으로 감독의 희생과 봉사에 보답하게 된다.

감독은 “좋은 감독은 선수들을 타달하지 않습니다. 운동할 수 있는 분위기, 믿고 따를 수 있는 신뢰만 조성하면 선수들은 알아서 운

동합니다” 감독은 철저한 선수들을 믿는다. 동기를 부여하고, 선수들이 실력에 맞는 대우를 보장해준다. 그결과 광주시청 육상팀은 지난 2002년 제82회 전국체전에서 출전선수 전원 금메달 획득이라는 신기원을 이루면서 10여년 동안 전국최강의 팀으로 자리매김 하게 된다.

감독은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03년 대한체육회 최우수 감독상, 2004년 시민대상과 대한육상연맹 최우수감독상, 2005년 대한체육회 공로상을 수상했다.

감독의 꿈은 자신의 애제자인 박태경이 올림픽 110m 허들에서 메달을 따내는 것이다. 또 조선대학교에 재학중인 세단뛰기 김덕현을 타 시도에 뺏기지 않고 광주시청으로 스카우트해 세계적인 선수로 키우고 싶어한다.

감독은 “예전과 다르게 선수들에게 눈물과 정으로 호소하고 감독 이름으로 스카우트를 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며 “고액의 연봉을 제시하지 못하면 우수선수를 데려올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1등 광주육상’을 위해 14년을 쉬지 않고 달려온 ‘영원한 빛’을 육상팬 심재용감독의 질주는 오늘도 멈추지 않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사진=최해배기자 choi@kwangju.co.kr



오는 10월 광주에서 열리는 제 88회 전국체전 준비에 한창인 심재용 광주시청 육상 감독(오른쪽)이 지난 22일 무등경기장에서 육상대표선수들에게 훈련을 지시하고 있다.

Advertisement for 'Small Meeting, Big Opportunity' (작은 만남 큰 기회) featuring various local businesses and services in Gwangju. Includes categories like real estate, education, and food services.